

수능 국어

짱

기출 수능 국어 모든 학년도(2022, 21, 20, 19, 18, 17, 16AB) 문제와 풀이

이성호 저

- 기출 수능 국어 모든 연도 문제를 수능 국어 짱 원리로 풀이
- 전 EBS 출제 위원 의 명쾌하고 정략한 해설
- A4 용지로 편집하여 출력이 용이

수능 국어 짱

수능국어 짱 시리즈는 최신 원리와 유형 문제를 제시합니다.

- 수능국어 짱 **현대시/고전시**가편
- 수능국어 짱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
- 수능국어 짱 **독서**편
- 수능국어 짱 **화법/작문**편
- 한자 성어 퍼즐, 속담 **어휘**로

수능국어 짱 시리즈는 인터넷 상 오르비스 유틸무스 전자책 판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수능국어 짱** 시리즈의 저자 **이성호** 선생님(문의처 : 010-7932-4149)의 **명쾌하고 확실한 해설**

감사합니다.

차례

1. 2022 기출 수능국어 문제	5
-2022 기출 수능국어 문제 해설	49
2. 2021 기출 수능국어 문제	71
-2021 기출 수능국어 문제 해설	103
3. 2020 기출 수능국어 문제	129
-2020 기출 수능국어 문제 해설	164
4. 2019 기출 수능국어 문제	187
-2019 기출 수능국어 문제 해설	225
5. 2018 기출 수능국어 문제	250
-2018 기출 수능국어 문제 해설	287
6. 2017 기출 수능국어 문제	310
-2017 기출 수능국어 문제 해설	346
7. 2016 기출 수능국어 A형 문제	372
-2016 기출 수능국어 A형 문제 해설	407
8. 2016 기출 수능국어 B형 문제	430
-2016 기출 수능국어 B형 문제 해설	465

수능국어

2022 수능 국어 문제와 해설

이성호 저

수능국어 짱 원리로

풀이한

2022 수능문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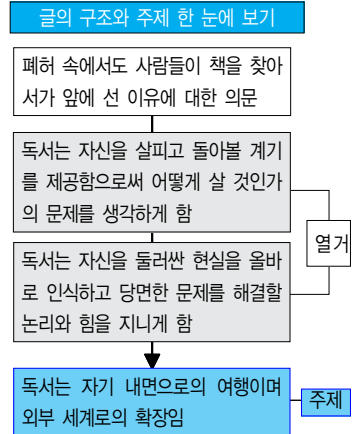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사진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이다.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성찰의 행위이며,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다.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독서의 의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성찰 :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여 살필.
- 숙고하다 : 잘 생각하다. 깊이 고려하다.

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 ②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 ③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 ⑤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2. <보기>는 ㉠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 ①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군.
- ②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군.
- ③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군.
- ④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겠군.
- ⑤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견고히 해야겠군.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기만을 바랐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

- ①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을 버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③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④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⑤ 개인의 지적 성장에 머무는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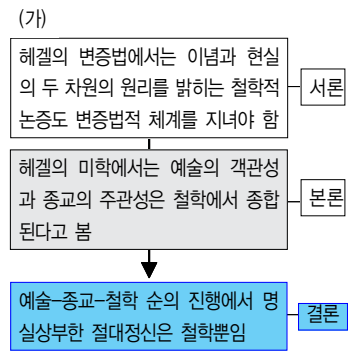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자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자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자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되거나 과거로 한정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반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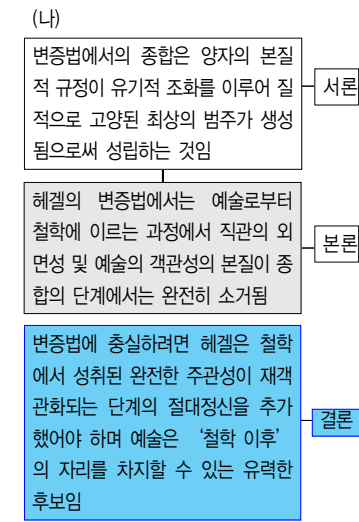


- ▶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제시하고 예술-종교-철학의 경우를 헤겔 변증법의 실례를 들어 이념과 현실의 논리적 관계를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 변증법 : 헤겔 철학에서,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 원리로 해서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는 논리.
- 표상 : 지각(知覺)에 따라서 의식에 나타나는 외계 대상의 상(像).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 변증법에서의 종합의 개념을 밝히고 미학에 있어서의 헤겔 변증법의 종합이 갖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휘·클리닉

- 고양되다: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높이 복돋워지다.
- 정합적: 가지런히 맞음.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은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2022 수능 국어 문제 정답 및 해설

홀수형

2021 홀수형 정답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01 ②	11 ⑤	21 ④	31 ⑤	35 ④	41 ①	35 ⑤	41 ③		
02 ⑤	12 ⑤	22 ①	32 ④	36 ⑤	42 ②	36 ②	42 ④		
03 ①	13 ④	23 ④	33 ⑤	37 ④	43 ②	37 ②	43 ④		
04 ①	14 ④	24 ④	34 ③	38 ①	44 ⑤	38 ①	44 ⑤		
05 ③	15 ②	25 ③		39 ①	45 ③	39 ⑤	45 ③		
06 ④	16 ④	26 ⑤		40 ③		40 ④			
07 ③	17 ①	27 ⑤							
08 ②	18 ③	28 ②							
09 ③	19 ③	29 ①							
10 ②	20 ②	30 ③							

1.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관점에서 대상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나)의 글쓴이의 관점은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구절에 드러나 있는데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은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것이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둘 다 (나)의 글쓴이가 변증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라는 (나)의 글쓴이의 관점과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나)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나)의 글쓴이가 변증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의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③

2.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에 대한 논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가)에서 헤겔의 주장을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보기>에서 헤겔은 지성 즉 철학의 성숙이 예술을 뛰어넘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나)의 글쓴이가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

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구절에 주장에 들어맞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이론은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예술-종교-철학'이라는 현실에서는 철학이 모든 것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②, ④, ⑤ 셋 다 헤겔의 주장과 무관하다. ③ 이론에서도 예술은 정립 단계로 서술하고 있다.

✓ 애답 ①

3.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㉔는 '두 범주 중 하나로 결정된다.'는 의미이고 '규결되다'는 '어떤 결론이나 결말에 이른다.'란 의미여서 동일한 의미가 된다.

● 오답 비루기 ㉕는 '어떤 일 따위를 맡아 가지다.'라는 의미이고 '소지하다'는 '몸에 지니다.'란 의미이다. ㉖는 '지시하거나 알리다.'란 의미이고 '포착하다'는 '꼭 붙잡는다.'란 의미이다. ㉗는 '살피다.'란 의미이고 '간주하다'는 '상태·모양·성질 따위가 그렇다고 여기다.'란 의미이다. ㉘는 '성립되다.'란 의미이고 '단체나 조직 따위를 만들다.'란 의미이다.

✓ 애답 ③

4.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트리핀은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지만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 오답 비루기 ①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③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 애답 ②

5.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 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달러에 대한 마르크화 환율이 내려가고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보다 많은 달러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증가한다.

● 오답 비루기 ①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다'고 하였으나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브레

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③ 금의 증산은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도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게 하므로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④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는 트리핀의 딜레마의 내용과 같은 의미이다.

✓ **해답** ⑤

6.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1이며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는 3이다. 따라서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많다.

● **오답 바꾸기**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와 같다.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과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같다.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는 nC_2 형태로 증가하므로 한 국가가 증가하면 $3C_2$ 에서 $4C_2$ 로 증가해 1보다 많게 증가한다. ④ ㉠에서 ㉠으로 바뀌어도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같다.

✓ **해답** ⑤

7.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가 2배로 평가 절상된 결과를 만들며 이와 마찬가지로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는 $\frac{10}{7}$ 배로 평가 절상된 결과를 만든다. 이러한 결과로 B국에 대한 C국 통화의 교차 환율은 $\frac{7}{5}$ 배로 상승된다. 따라서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frac{7}{5}$ 배로 개선된다.

● **오답 바꾸기** ① <보기>의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라는 구절로 보아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은 A국 통화의 신뢰도와 관련이 없다. ②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은 B국의 같은 금액으로 A국 통화를 보다 적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③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하락하지만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⑤ 완화 방안 중 하나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평가 절상이 있는데 이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해답** ④